



2019 SIHH

바쉐론 콘스탄틴, 최고급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1 월 22 일, 제네바 –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 29 회 2019 SIHH 에서 아름다운 파인 워치메이킹과 다양한 감정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SIHH 에서 공개된 새로운 모델에는 모두 혁신과 탁월한 기술, 예술적 장인 정신의 완벽한 조화가 깃들여 있다.

감정에 대한 찬사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가 전시된 윈도우에는 타임피스, 그리고 타임피스가 담아내는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재현했다. 특별한 장치를 통해 정교한 투르비용과 대담한 임페리얼 타이거, 트윈 비트가 전하는 두근거림, 탁월한 미닛 리피터와 퍼페추얼 캘린더, 놀랍고도 강력한 14-데이 투르비용을 감상할 수 있다.

최고의 파인 워치메이킹

메종은 **Traditionnelle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를 통해 워치메이킹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모델은 착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이중 진동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스탠바이 모드에서 최소 65 일로 파워 리저브가 연장된다. 따라서 퍼페추얼 캘린더는 사용자가 시계를 착용하지 않을 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출원 중인 두 가지 기능은 Traditionnelle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에 장착된 탁월한 첨단 기술을 보여준다.

메종의 탁월한 기술력은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이는 셀프 와인딩 **투르비용**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다. 이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내 페리페럴 로터를 탑재한 울트라-씬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8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특별한 캐비노티에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는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로 메종 워치메이킹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캐비노티에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특별한 **메카닉 소바쥬** 타임피스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탁월한 예술 공예로 완성된다. 칼리버 2460 G4 를 탑재하여 시간 및 날짜 디스플레이를 다이얼 가장자리에 배치했으며, 다이얼 중앙에는 핸드 인그레이빙과 마르퀘트리 기법으로 생생함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Patrimony 와 Fiftysix 컬렉션은 블루 다이얼을 새롭게 해석하여 선보였다. 특별한 컬러와 마감 기법을 사용하여 각 컬렉션 고유의 정신을 담아냈다.